

경북, 로봇산업에 4862억… 구미 공급망·포항 R&D 거점 육성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
5년간 6대 전략 15개 과제 추진
특화단지 기반 생태계 확장 계획

경북도는 24일 구미시청에서 삼성의 구미 로봇 투자에 대응해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를 발족하고, 향후 5년간 4862억원을 투입하는 '경북 로봇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T/F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략기획·공급망전환·R&D 발굴·투자유치·산업입지·기업협력 등 6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도청 관련 부서가 참여해 산업용자 확보와 신규 R&D 과제 발굴,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경북도는 6대 전략 15개 과제를 추진해 구미를 부품·양산 중심의 '공급망 거점', 포항을 '연구개발·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로봇 특화단지 유치를 기반으로 도내 전역에 전주기 로봇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24일 구미시청에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액추에이터, 센서·카메라 모듈, 로봇용 배터리, 케이싱 등 4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양산 R&D를 지원하고, 부품·완제품 '오픈 파운드리'와 '표준화 인증·평가 지원센터', '피지컬 AI 로봇 학습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제조기업 150개사의 로봇산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며, 80개 사에는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150개 제조현장에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로봇기업협의회는 기존

포항·구미·경산 3개 거점에서 북부권을 포함한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로봇 특성과 대학(원) 유치와 재직자 리스킬링(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약 3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김창혁 경북도의 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 회 의장, 관련 기관과 구미지역 로봇기업 11개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나온 기술개발·로봇

도입·R&D·인프라 지원 수요 등을 신규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융합된 '제조 AX'는 지역 제조업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로봇 공급망과 제조 혁신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대구한의대 글로벌 대학 기업지원관 세운다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는 24일 글로벌 대학 기업지원관 조성하고 준공 후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지원관은 대구한의대가 교육부 '글로벌 캠퍼스30'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삼성캠퍼스에 연면적 1만 569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기업지원실 50실과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양 기관은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준공 후 회의·컨벤션 시설을 경산시 주최·주관 행사와 교육·세미나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청도군

아이스홍시 2.7t 수출 선적식

청도군은 24일 농업회사법인 ㈜청도원감에서 청도반시를 활용한 아이스홍시 약 2.7톤의 일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청도원감은 청도읍 신도리에 소재한 감 가공업체로, 2024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됐다.

이번 수출 물량은 약 2.7톤으로, 아이스홍시는 일본 내 약 2만2천 개 점포를 보유한 세븐일레븐 유통망에 진출한다. 청도반시가 가공제품의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도(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와 지역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포항시청에서 방문의료센터 활성화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ALL GOOD 통합돌봄' 가동

방문의료센터·지역 의료단체 업무협약 박용선 시장 "시민의 건강한 노후 자원"

포항시가 보건·의료·요양·복지를 연계하는 '포항 ALL GOOD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방문의료센터와 지역 의료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명으로 구성된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약에는 포항시와 포항의료원,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치과의사회, 포항시한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방문의료 대상자 발굴·연계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기

관 참여 확대, 정보교류 및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포항 ALL GOOD 통합돌봄' 모델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재수 부산시장, 서부산권 기업 현장점검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진행

부산시는 24일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들과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재수 시장(사진)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서명한 '부산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현장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남규 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김윤기 서부산스마트밸리관리공단 이사장 등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차 전동화 부품 시생산·평가 장비 공용 플랫폼 구



전 재수

건이 오겠다. 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20분 강서구 범방동의 지비라이트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전 시장은 "서부산권 산업단지는 부산의 산업을 이끌어 온 핵심 거점이자, 지금도 부산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오늘 주신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명소발굴 프로젝트' 775건 선정

해인사·진주성 등 국민 선택 받아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 투표에서 경남관광명소가 총 775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 기자·작가 등 여행전문가 100인이 전국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 8개 분야 100개 여행 주제별 명소를 뽑는 참여형 사업이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국민 4만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8035표를 행사했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의 관광자원이 8개 분야에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미식 분야에서는 통영 충무김밥과 의

령 망개떡이, 자연·생태 분야에서는 함양 상림공원과 거제 신선대, 남해 보리암 등이 선정됐다. 문화·예술·전통 분야에서는 함천 해인사와 진주성, 밀양 영남루 등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숨은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선정된 명소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진도군,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체계 고도화

진도군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통합돌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일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스마트 돌봄 분야' 특화사업인 '스마트 365 안전지킴이'를 추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표적인 보안, 안전기업인 ㈜에스원이 협력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에 이동감지센서

등 지능형(스마트) 기기를 설치한 후, 24시간 활동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에스원의 관계 및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지능형(스마트) 통합돌봄 체계(모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도군은 수행업체 공모를 통해 ㈜에스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에스원이 보유한 24시간 관제 및 긴급출동 역량과 지능형(스마트) 센서 기술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접목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국립창원대-경남중기청

지역 글로벌 마케터 육성 '맞손'

국립창원대학교와 글로벌마케팅육성사업단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글로벌 마케터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창원대는 지역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 해외 전시회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와 사업비도 지원한다. 경남중기청은 수출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발굴·추천하고, 현장 실습·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대학과 연계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